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지킴이 역할에 최선의 노력”



손두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최근들어 안전·보건 및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는 기업경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이 늘어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으면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 시 안전관리 부분의 가산점 부여와 노동부 포상 시 가점이 부여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전·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업무의 질적 향상과 함께 재해예방 및 사고율 감소, 예방점검을 통한 장비 및 설비의 가동률 향상, 근로자 복지 개선 등의 효과가 가장 크다.

건설업계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급은 아직까지 저조한 편이다. 6월 현재 종합건설업계 17개사, 전문건설업계 39개사가 인증을 취득했다. 39개의 전문건설업체 중 설비건설업계는 13개사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이는 설비건설업계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원도급업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증 취득에 대한 업체 대표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본지는 종합건설업계 및 전문건설업계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의 손두익 본부장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서울지역본부가 하는 일은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990년 2월에 개원하여 서울전역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중추기관으로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서울북부지도원 개원 이후에는 서울 남부지역과 성동구, 광진구를 포함하여 13개 구 25만여 사업장의 200만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감소와 서비스업의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분포는 작년 말 기준으로 서비스업 83%, 제조업 7%, 건설업이 5%를 차지하고 있고, 업종별 재해점유율은 총재해자 8,628명 중 서비스업 63.4%(5,471명), 건설업 20.8%(1,795명), 제조업이 9.5%(820명)를 점유하여 서비스업의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아울러,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의 '10년 건축공사 착공면적이 대폭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현장의 재해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 및 사회적 변화에 맞는 특화된 재해예방 전략을 수립하여 재해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서비스업, 건설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조정 및 지자체·직능단체와 연계한 재해 예방 사업추진, 지역별 집중관리대상 선정 등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을 차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서울지역의 재해율은 0.41%로 전국 재해율 0.69%에 비해 약 40%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율은 우리 서울지역본부의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안전팀, 직업건강팀, 사업지원팀, 교육센터, 전문기술위원실 등 7개부서의 전 직원이 안전, 보건, 건설,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흘린 결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업계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급현황 및 설비건설업계 인증 취득 현황

건설업 KOSHA 18001 인증 현황을 보면, 2001년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8개의 발주기관, 현대건설(주) 등 17개의 종합건설업체, 39개의 전문건설업체 등 모두 64개사가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삼성중공업(주) 등 5개의 종합건설업체, 12개(설비 2개사)의 전문건설업체가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향후 전망

정부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 등으로 건설재해 예방 효과를 증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단위에서 본사 중심의 안전활동으로 전환하여 본사의 안전관리 인력을 활용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발주기관과 종합건설업계에서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인증신청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은 안전경영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추진 의지, 안전경영이 회사의 경영성과와 직결된다는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하고자 올해부터 외부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전문건설업계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비건설업은 타 전문업종에 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 전체 인증 사업장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업체가 인증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증 취득 후 업계의 달라진 점

최근 건설경기가 급랭하면서 건설업체의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안전활동 위축으로 건설재해가 다시 증가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재해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위험정도를 평가하여 잠재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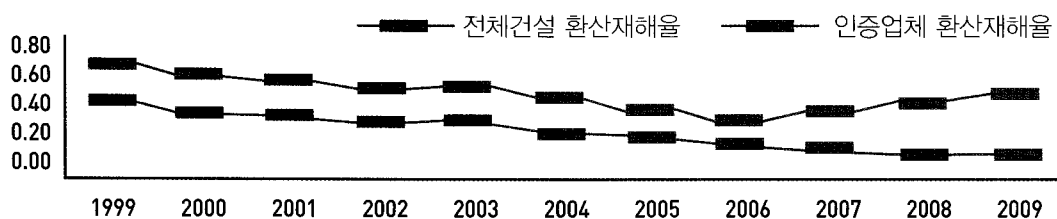
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및 구축으로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건설업체의 산재보험금과 근로손실, 작업중지로 인한 영업손실 등 재해손실비용을 최소화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는 물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2009년 3월에 인증준비를 시작하여 2009년 12월에 인증을 취득한 세일ENS(주)의 경우, 안전사고 건수가 인증 도입 전(2008) 12건에서 2010년에는 4건으로 67% 감소하였고, 안전사고 보상액도 2008년 대비 2억3백여 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로는 보기 드물게 본사에 안전부서를 신설하고 안전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원도급업체로부터 안전관리를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어려운 건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수주물량이 증가하는 등 회사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체 건설사 대비 KOSHA 18001 인증업체 평균 환산 재해율 비교(인증 17개사 기준)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환산 재해율	인증업체	0.35	0.37	0.29	0.25	0.22	0.20	0.15	0.15
	전체 건설사	0.57	0.57	0.51	0.40	0.45	0.44	0.43	0.50



“안전·보건은 정부나 공단 등 공공부분의 역할과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사업주, 노동단체, 민간단체, 개인 등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할 때 안전한 일터, 행복한 가정, 튼튼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안전보건경영 전파 노력은

건설업은 본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수시로 현장이 생성·소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KOSHA 18001 인증을 받은 17개 종합건설업체는 전국에 1,650개의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만 해도 약 800여 대형건설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파급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공단은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도입·구축이 재해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도 시스템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인증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서울지역본부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설비건설업계에 당부 말씀

산업재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여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국가의 경제발전 역량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과 근로자의 건강이 확보된 양질의 고용은 개인의 행복과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건은 정부나 공단 등 공공부분의 역할과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사업주, 노동단체, 민간단체, 개인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 기업은 지속적인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 개인은 조금 늦고 불편하더라도 위험을 보려는 노력을
- 사회는 안전이 기본이 될 수 있는 문화

를 창출하는 등

구성원 전체가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할 때 안전한 일터, 행복한 가정, 튼튼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은 안전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안전경영이 회사의 경영성과와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전 직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지역본부의 전 직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손두익 본부장은

- 1953 경북 안동 출생
- 기계기술사, 공학박사
- 숭실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학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석사, 박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공기업 고급경영자과정(수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HRD 최고경영자과정(수료)
-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Techno-최고경영자과정(수료)
- 1976 한국정밀기기센터
- 1979 한국기계연구소 (원자력, LNG 등 각종플랜트건설참여)
- 20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현재)
- ISO/TC 96 크레인 국제규격제정위원회 한국대표(10년간)
-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산업기계, 에너지기술심의회)
- 대한설비공학회 평생회원/ 한국엔지니어클럽 이사
- 2005 대한민국 산업포장대한민국 산업포장